

「낙성비룡」과 「蘇大成傳」의 比較 考察

曹 喜 雄*

1. 序 言

「낙성비룡(洛城飛龍)」은 周知하다시피 1966년 藏書閣(樂善齋) 所藏 고전 소설의 재발굴과 함께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그 후 1968년 3월 이 소설은 역시 장서각 소장의 「인봉소」와 함께 합본 영인됨으로써 (慶熙出版社刊 〈인봉소·낙성비룡〉) 원문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작품은 장서각 소장의 많은 巨帙의 大河小說 속에서 비교적 짧은 편인 單冊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 역시 우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그간 몇 편의 연구 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¹⁾ 필자도 1974년에 〈國學資料〉에 本考와 同名의 해제를 겸한 題見을 발표한 바 있거니와²⁾, 이 글의 요지는 주로 兩作品의 내용 비교 및 작품의 원전에 대한 推量이었다. 이제 다시 上揭文을 부연하려 함은 그 후 새로운 사실의 발견도 있고 하여 補筆을 더하려는 뜻에서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작품의 내용 연구라기보다는 차라리 原典批評 내지는 異本考의 성질을 지닌 것임을 전제해 두기로 한다.

2. 「낙성비룡」의 異本 및 기타

장서각 소장본 「낙성비룡」은 전 2책 129엽(권一 63엽·권二 66엽, 총 257 pp.)의 筆寫本이다. 字體는 매우 유려한 宮體로 쓰여져 있으며, 매 페이지당 10行, 每行當 17~22字(평균 19자) 정도로 되어 있다.

* 國民大 教授 (國文學專攻)

- 1) 朴明淑, 洛城飛龍研究(1971. 12. 梨大大學院論文).
金一烈, 洛城飛龍研究(1976. 12. 慶北大 東洋文學研究所 東洋文化研究 3輯).
- 2) 拙稿, 낙성비룡과 蘇大成傳의 比較考察(1974. 6. 國學資料 卷15호).

「낙성비룡」의 이본을 既刊 <도서 목록>에서 찾아보면, 우선 국회도서관에서 발간한 <古圖書綜合目錄>에서는 장서각 소장본과 故 李海晴 소장본 및 天主圖(천주교회사연구소) 소장본의 셋 이외에 高大 도서관의 「星龍傳」을 찾을 수 있고, W.E. Skillend가 쓴 <古代小說(Kodae Sosol: A Survey of Korean Traditional Style Popular Novels)>에서는 장서각 소장본, 鄭炳昱 소장본 「낙성전(落星傳)」, 李海晴 소장본 「洛星飛龍錄」을 들고 있다.

위의 여러 이본 중 이해청 소장본은 그 題名으로 미루어 장서각본의 이본임을 틀림없을 듯하나 현재 그 행방을 알 수 없으며, 천주교회사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다는 것도 필자가 合井洞에 있는 同 연구소를 探訪한 바에 의하면 誤傳임이 드러났고, 정병욱 소장본 「落星傳」은 후술할 바와 같이 「낙성비룡」과는 전혀 상관 없는 작품임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高大本 「星龍傳」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高大本 「星龍傳」 乾坤 2册(初卷 56엽, 終卷 46엽)은 內題가 「낙성비룡」으로 되어 있는데, 終卷 末尾의 다음과 같은 기록으로 미루어 낙성비룡(2권)→이문성취록(15권)으로 이어지는 大河 家系小說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스적이 호 기록호릭 잠간 기록호야 세상의 전호나니 칭후 부뷔 만나 영화와 조여의 스적은 별견이 잇난고로 초초이 기록호난니 후인은 초청호회 호라.

후록은 니문성취록 십오권 잇시나 다 못 기록호노라」

그러나 아직까지 「이문성취록」의 내용에 대하여는 學界에 알려진 바가 없다.

「星龍傳」의 筆寫年代는 初卷 및 終卷의 표지에 모두 癸卯年으로 되어 있고, 初卷 제57엽 및 終卷 제47엽으로 붙어 있는 別添紙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임인 남월의 위시호야 제묘 원월의 종이라. 이 책이 비록 언서는 니경무의 작인 되미 진짓 현인군지라 우리 누의님게옵서 한번 보시미 우례울 문호하야 동서호야 달나호실 쉰 누의님이 본터 언문이 문장이시고 미스의 출인호시며 효열이 별다라시기로 양쇼저의 효열을 칭복호시며 벗기기를 원호시기 위월치 못호와 섯소나 필법이 심히 정치 못 오즈낙서 만홀지라 장차 보시는 이 늘니 보시고 우리 남미 지극 우의를 표호여세는 이 글시울 웃지말고 상호오지 말고 앓겨앗겨 보시옵쇼서」(初卷 末尾)

「이 책 시종을 조서니 살피니 빈한 영육이 다 책가 잇시니 세상사를 잊지 일역으로 할리요 초희라 세인들은 이을 보아 삼가할지어다.

계묘 니월 일에 동서우예곡항노라」(終卷·末尾)

여기에 나타난 계묘년을 역사상에서 찾아보면 비교적 근대에 가까운 1783년, 1843년, 1903년을 들 수 있을지나, 일반적인 고전 소설의 유행 연대라든가, 紙質 등을 고려하여 1843년이 아닐까 추정해 본다. 그러므로 이 소설의 창작 연대가 1843년을 상회할 것임을 물론이겠다.

그리고 장서각본이나 高大本은 모두 2권 2책³⁾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대조하여 보아도 後者에는 漢文章回名이 없이 줄글로 계속되어 있으며, 前者의 한문 적역체 문장에 비하여 후자는 매우 평이하고도 깔끔한 세속 문장으로 다듬어져 字句上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번거로움을 피하여 양본의 내용 對比는 생략하기로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語誘體의, 아니 전문적인 번역사에 의하여 번역(?)된 「낙성비룡」이 시종에서 유전되는 도중 「星龍傳」과 같은 사본이 생겨났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편 스킨랜드가 「낙성비룡」의 이본으로 소개한 정병욱 소장의 「落星傳」은 실은 「낙성비룡」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작품이다. 스킨랜드가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된 데는 우선 그 제명인 「落星傳」을 「낙성비룡」의 略語로 오인한 것과, 양 작품의 序頭 부분이 매우 비슷한 데서 내린 결론임이 틀림없을 것 같다. 양본의 첫머리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대명 정통 년간의 북경 뉴화촌의 일위 현시 이시니 성은 니오 명은 류현이니……」(낙성비룡)

「대명 정덕 년간 북경 뉴화촌의 일위 서성이 닛시니 성명은 방관취오 즌난 문빅이니……」(낙성전)

3) 「星龍傳」의 分冊은 筆寫者에 의한 作爲의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星龍傳」 初卷은 <권지일>뿐만 아니라, 제50엽 후면에서 <권지니>가 시작되고 있고, 末尾가 「……공이 지삼 위로항고 이 싹히 오리 머무지 못할 거시니 가가말 지죽 항니 이에 항직고 전의 나려미 옥」(제56엽후)으로 끝났다. 이는 終卷의 序頭 「점이 조야항야 누리고져 하다가 싹항야 써다라니 문득 침번일몽이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이 제명과 서두 제 1행만 비교하면 양본의 유사성은 분명한 것 같으나 좀더 양본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전연 판이한 작품임이 드러난다. 여기서 「落星傳」의 내용을 상술할 필요는 없겠으나, 이 작품의 스토오리를 略記해 본다면, 주인공 「방관주」가 晩得女로 출생→男裝으로 성장(近親外엔 아무도 그가 여자임을 모른다)→壯元及弟→결혼(신부는 신랑의 본색이 여자임을 추측하긴 하였으나 남성혐오증 때문에 모르는 척 결혼한다)→吏部侍郎이 되었으나 자신의 참소로 형주안찰사로 부임. 善政→落星을 보고 찾아갔다가 어린아이를 얻어 「落星」(또는 남성?)이라 이름짓고 養子로 하다→北胡의 침공을 大破→戰功으로 승상이 되다→도사가 방승상의 殞命을 예언→問病하는 천자에게 자신의 본색이 여자임을 고백하고 운명→養子 낙성의 後日談이 작품의 骨子を 이루고 있다. 이 소설의 이름이 「落星傳」으로 되어 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落星의 조짐」을 보고 養子를 얻은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로 미루어 「落星傳」과 「낙성비룡」의 無關性은 自明하리라 생각한다.

3. 〈낙성비룡〉과 〈蘇大成傳〉의 비교

「낙성비룡」을 읽어 가노라면 우리는 우선 「長眠」·「大食家」라는 낯익은 모티프에 주목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티프의 사용이 또 다른 고전 소설에서도 사용되었던 것임을 생각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소설, 곧 「소대성전」은 고전 소설기 중 「춘향전」 「조웅전」에 이어 가장 많은 출간 회수를 가졌던 작품이요⁴⁾, 가장 포퓰라한 작품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작품의 유사점이 단순히 주인공의 長眠·大食家라는 모티프에서만 그치지 아니하고, 전반적인 스토오리의 전개에 있어서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다. 즉 이 두 작품에 대한 세밀한 비교 작업에 의하면, 양본은 별개의 작품이 아닌 이본 관계에 있는 작품임이 발견된다.

이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작품의 플롯을 비교하여 보이면 다음과

4) 刊行된 이본의 수에 의한 고전 소설의 순위는 1. 春香傳(38) 2. 趙雄傳(22) 3. 蘇大成傳(15) 4. 九雲夢(13) 5. 沈濟傳(12) 6. 張風雲傳(10) 6. 洪吉童傳(10) 6. 淑英好子傳(10) 等の 順이다. (趙東一: 韓國小說의 理論, 서울, 知識産業社, 1977, p. 286 참조)

같다.

* (蘇)는 「蘇大成傳」, (洛)은 「洛城飛龍」을 가르킴.

① 後嗣가 없는 소양(蘇) / 이주현(洛)에게 그 부인이 再娶를 원하자 그는 거절한다.

② 靑龍(蘇) / 黃龍(洛)의 꿈을 꾸고 잉태.

③ 十朔(蘇) / 十八朔(洛)만에 得子하여 大成(蘇) / 경작(洛)이라 이름 짓다.

④ 아이의 기상이 비범 · 過人하였다.

⑤ 10세(蘇) / 3세(洛)에 부모 俱沒하였다.

⑥ 田庄을 팔아 장례를 지낸 후 주인공이 남의 집 雇貢살이하며 떠돌아 다님.

⑦ 한편 捨官 落鄉한 이승상(蘇) / 양승상(洛)이 3男 2女(蘇) / 2男 2女(洛)를 두어 다른 자녀는 모두 成禮시켰으나 막내딸만 남아 13세(蘇) / 14세(洛) 되자 사똥감을 널리 구함.

⑧ 주인공이 주야로 잠을 많이 자고 食量이 대단히 큼.

⑨ 승상이 언덕에 올라 깊은 잠에 빠진 나뭇꾼(蘇) / 소치기(洛) 소년을 발견.

⑩ 소년이 잠결에 시를 읊음.

⑪ 소년이 잠을 깨자 家門을 물으니 소년은 모른다고 대답.

⑫ 婚事를 정하려 함.

⑬ 승상 부인이 소년의 비천함을 들어 반대.

⑭ 승상이 부인과 아들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婚禮를 강행함.

⑮ 5·6朔(蘇) / 4·5朔(洛)만에 승상이 下世.

⑯ 부인을 제외한 온 집안 사람의 멸시와 박대가 시작됨.

⑰ 견디다 못해 정처 없는 유랑의 길에 오름.

⑱ 지냈던 전 재산을 고난에 빠진 사람[(蘇)부모喪 만난 사람 / (洛)官價 못 갚은 사람]에게 아낌없이 털어줌.

⑲ 仙童(蘇) / 靑衣童子와 노인(洛)이 나타나 갈 곳을 알려주고 표연히 사

라집.

- ⑳ 靑龍寺(蘇)／靑雲寺(洛)를 찾아감.
- ㉑ 절의 주지가 주인공을 반가이 영접함.
- ㉒ 북흉노와 西戎(蘇)／번왕(洛)이 반란을 일으켜 中原으로 침입.
- ㉓ 주인공이 出陣하여 적군을 大破.
- ㉔ 反軍을 평정하고 노왕(蘇)／대승상(洛)의 爵을 받음.
- ㉕ 歸路에 부인과 해후.
- ㉖ 有子生女하여 부귀 영화를 누림.

이상의 사전에서 양본의 유사성을 좀더 명확히 드러내기 위하여 ⑩의 경우를 들어 양본을 비교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蘇大成傳

「죽장을 집고 월영산 도티로 나아가이 나무 비난 아히 나무 비여 세너가의 노코 비들 그늘을 의지하야 잠을 집피 들어거놀 보이 의상이 남누호고 머리털이 훑터져 귀밧을 덜퍼시며 거문 석 줄줄리 흘너 양협의 가득항이 그 쉼비호물 칩양치 못하나 그 중의 은은흔 골격이 썩속의 비취여거놀 해지 안이호시고 무수호 이을 자바 죽니며 잠 세기을 기다리던이 그 아히 몸을 돌너 누의며 탄식 왓 형산 비옥이 돌 속으 썩거신이 누 보빈 줄 알아보며 상의 조최은 교덕의 잇건마은 문왕의 그림즈 업고 와룡은 남양의 누어시되 유황숙의 조최 업시이 어너 놀의 감조일을 만나리요 호며 도라 누으니 그 소리 웅장호야 산천이 울리난지라」(金東旭編,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卷一 p. 575 上)

○洛城飛龍

「공이 막대론 집고 한가히 풍경을 보더니 셋년 언덕의 화뿔 싸려 나거놀 스스로 유완코져 호야 언덕의 니르러 두로 귀경호야 거리 한 고덕 다드라는 혼 아히 수풀의 누어 줄을 니기 드리시던 쇼 들은 각각 혁의 띠야 길게 늘리 제 발목의 띠고 자거놀 승상이 보매 의장이 남누호야 더론 뵈오시 허러 슬을 그리오디 못호고 어저러 은 머리털이 닷출 덜허시니 면목을 능히 모를러라 공이 걸인인가 너져 추연 탄식고 세기을 기다리던이 그 아히 문득 기지계 혀고 입으로 증결의 울퍼 같오디 셋년 언덕의 풀이 집허시니 두 쇼를 잇그려 봄즘이 집도다 어디 못게라 누 눈 | 이셔 태산을 알리오 춘추적 념척을 금세의 효측호나 어는 제후 예빙호고 읍기물 따즈매 문득 도로혀 누어 자거놀 공이 음성을 드르니 학녀청언이 웅위 당원호야 녹늘이 도화호듯호디라」(慶熙出版社刊, 인봉소·낙성비룡 pp. 276~277)

上述한 바와 같이 양본간의 유사성을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는 삼

화 중의 하나는 두 작품 모두 주인공을 長眠・大食家로서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민간 속담에 ‘소대성이 모양 잠만 자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대성의 잠은 유명한 것이지만, 「낙성비룡」의 주인공인 이경작(이경모의 兒名) 역시 그에 못지 않은 長眠・大食家로서 고려하고 있다.

「성이 원간 빗 가스리고 나니 곤여하기 무궁호디라 작별 쇼계를 본 체 아니하고 상의 올라 자머니 효계 창성호매 쇼계 니러 너실로 드리오니 늦도록 성이 니디 아니하니 조반을 출리고 부인이 셔오라 호대 승상이 말라 하고 날기불 기다리더니 날이 느즈 후 밤야호로 셔거늘 즉시 진상을 드리니 단찬과 향계 좌우 상의 맛호여 시니 뒤양 초디 못호게 먹다가 만든 음식을 당호매 냥을 여러 상이 비게 먹으니 어스 형매 대경 왈 그디 식량이 마장 장호다 경작이 널오터 만히 주시는 거슬 남기기 브결업도다 인호야 상을 물리니 부인과 가등이 다 놀라디 공은 회동안시호야 깃거호미 무궁호나 부인은 더욱 깃거 아나……」(前掲 洛城飛龍 pp. 302~303)

「초후 성이 묘색밤이 능히 주겨 너른 냥의 초디 못호고 시러품 벗호리 업스니 뒤양 잠자기를 일삼더니 어스 형매 더의 곱히 줌드려시물 보고 큰 노를 가져 스저물 뒤야 공동의 득디 움죽디 아니호고 코 고오는 소릭 우레 마토야 의의히 눕히 돌려시니 이인이 박장 대쇼왈 잠이 깃다 호들 이리호 니 어이 이시리오 진짓 토미호 증성이로다 일당을 대쇼호고 나오니 성이 자기를 저모도록 호고」(同上 pp. 317~318)

이와 같은 作中 주인공의 長眠・大食에 관한 일화는 전편을 통하여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니, 가령 科試場에서 잠이 깊이 들어 唱榜하는 줄도 모른다는 등가(pp. 413~415), 朝禮에 늦어 天子와 百官을 기다리게 하였다는 것(pp. 481~483) 등을 들 수 있다. (기타 p. 312, pp. 329~330, p. 333, pp. 335~336, pp. 446~447, pp. 451~452 등 참조.)

한편 위에서 든 ㉑과 깊은 삽화는 순서상으로 보아 약간 다르게 나타난다. 즉 「낙성비룡」에서는 주인공이 부인에게 10년 기약을 하고 처가를 떠났을 때의 사건으로 나타나나, 「소대성전」에서는 주인공이 10세지 부모를 여윈 후 田庄을 팔아 노복들에게 맡기고 기서 땅으로 향하였을 때의 일로 되어 있다.

○洛城飛龍

「성이 힘호연디 삼일의 니르터는 대설이 느리고 일식이 늙렬호니 눈을 무릅써 촌촌이 힘호더니……(中略)…… 문득 사뭇의 우름 소리 의의히 들리거늘……(中略)…… 반빅 노인이 몸의 상복을 입고 보홀 쓰고 울거늘 성이 나아가 손을 드리

유희고 문왕 노옹은 어디 사름이며 브스 일로 통곡하야 텃인의 마음을 참담케 하노
노 노옹이 울기를 그치고 담배하야 뉘오더 나는 절강 사름이러니 나히 녹십이라 구
십 노모를 드리고 이서더 집이 가난하야 농업도 하니 못하고 노뉘 금년 하간의 죽
거늘 관가 빚을 내어 초상과 영장의 뱃더니 빚 바들 귀흔이 넘으매 독축하기 성화
ㄱ득야 관치 미양 집을 들버니 괴곤하기 더욱 심하더니 구십 노모를 관가에서 가도
와 빚을 갹하야 노하리라 하는 고로 경향의 아니 빈 더 업스더 문전을 엮디 못하니
늘근 어미 일명 죽을디라 고향으로 향하매 우뚝을 춤디 못하더니 존스의 무릅시미
이실시 정스를 고향노라 성이 텃파의 양턴 탄왈 존옹의 말을 드르니 내 마음이 버
니는 듯하야라 연이나 언마나 하면 능히 갹함고 기운 왈 은조 이빈 냥을 내여 뱃더
니 이제 삼빅금만 하면 갹하리라 성이 즉시 매었던 푸개를 버서 갖재 주며 왈 이거
시 비록 적으나 존옹의 빚을 갹함가 하노이다 가저 가 화를 면하라 노옹이 퍼 보니
은조 삼빅 냥이 드렸더라. (前掲書 pp. 351~355)

○蘇大成傳

「약간 남은 전장을 파라 노복에게 띄기고 빅금 오십 양을 가지고 가서 밖으로 향
한다가 서주 지경의 날이 저물리 주점의 드러 주더니 실낱 우름 소리에 마음이 주
연 비감하야 키창 혼동의 잠을 일우지 못하다가 놀이 밭그리 우던 스펀을 초조 물
은 죽 비취 노인이라 성이 문왕 노인은 무삼 연고로 간밤의 달야 통곡하시잇가 노
인이 담왈 나는 금년이 육십이웁더니 구십 노모 상스울 금춘의 만나 권평으로 과
하하웁고 추동이 당하셔되 장사하올 기리 업서 노모의 희곡을 거두지 못하야 통곡
하여는이다. 성이 눈물을 지우고 탄식왈 나도 텃지를 일은 스펀일던이 노인의 정성
은 뜻사오리 갹하흔지라 이거시 비록 저그나 장스의 붓디소서」(前掲書 p. 574 上
左)

이상의 諸例에서 양 작품의 유사성은 어느 정도 밝혀졌을 줄 믿는다. 물
론 양본간에는 차이점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가령 반란군의 中原 침입 이
후의 사건들은 거의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양본의 유사성 내
지 차이점은 무엇으로써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하여 필자는 원래
이 두 작품은 공통 祖本으로부터의 파생이 아니면 상호 영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洛城飛龍」과 「蘇大成傳」은 비교 문학적으
로 보아 동일 작품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본의 底本이 되는 작품은 무엇일까? 현재로서는 미상으로 처
리될 수밖에 없지만 생각컨데 국내 창작이 아닌 중국 소설로 보여진다. 그
러므로 「낙성비룡」은 다음과 같은 위치에 서는 작품이 아닐까 한다.

번역 變改
中國原本 —————> 낙성비룡 —————> 蘇大成傳

4. 창작 번역 시비

위에서 말한 바 「낙성비룡」의 번역론은 다음과 같이 論證할 수 있다.

첫째, 한문투의 문장

「낙성비룡」이 번역투의 문장임은 본 작품을 세밀히 검토하여 보면 곧 알 수 있다. 논술의 편의를 위하여 일일이 引例함은 생략하기로 하나, 다음과 같은 한문 章回名의 존재가 그러한 주장의 一端이다.

- 능호귀곤위목동 (p. 249)
- 양공일안특영웅 (p. 273)
- 니슈지별처탁운스 (p. 320) 이상 卷之一
- 낙양비회봉이우 (p. 375)
- 중슈지비동농문 (p. 403)
- 일도위상평강서 (p. 422)
- 금의환향고인봉 (p. 454)
- 부부상합당환낙 (p. 477) 이상 卷之二

장서각 소장 고전 소설 중에는 한문 장회명을 가진 소설이 모두 35종이 있는데, 이 중 번역임이 확인된 작품은 30종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寡聞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국내 창작 소설의 경우 한문 장회명을 가진 작품은 단 하나도 없다. 한문 장회명과 번역 소설에 대하여는 이미 別攷⁵⁾로 詳論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주기 바란다.

둘째, 장서각 소장 소설들의 성격

장서각 소장 國文本 고전 소설 총 83종 중 현재까지 번역임이 밝혀진 작품은 모두 40종이며, 그 외에도 번역으로 거의 확실시되는 작품은 15종 정도를 헤아릴 수 있다. 이와 같이 장서각 소장 소설의 성격이 高宗年間에 궁중에서 번역사를 두고 중국 작품을 번역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두고 볼 때, 「낙성비룡」의 번역에 대한 蓋然性은 더욱 커진다. 낙선재 소설과 번역 소설에 관한 문제도 역시 拙稿⁶⁾를 참조하여 주기 바란다.

5) 拙稿: 「인봉소」研究(1974. 3. 古典文學研究 第二輯)

6) 拙稿: 樂善齋本 翻譯小說 研究(1973. 12. 국어국문학 第62~63合併號)